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임 상 빈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억압된 성적욕망의 시각화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조은지

억압된 성적욕망의 시각화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임 상 빈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조은지

인 준 서

조은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본인의 작업 중 ‘Instant Red’ 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석사 청구전에 전시된 작품을 중심으로 표현 형식을 연구하고 그 의미에 대해 서술한 글이다.

본인은 인간이 가지는 수많은 욕망 중 성적 욕망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이 다른 종류의 욕망과는 다르게 보여 지는 사회의 인식에 대한 의문으로 작업을 시작하였다. 성적욕망은 언제나 금기를 위반하지 않은 채 그 안에서 충족되어야 했다. 이것은 욕망에 대한 제한 그리고 억압이다. 그러나 금기가 없다면 욕망이 있을 수 없고, 욕망이 없다면 금기가 있을 수 없다. 두 관계는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다.

본인은 일상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성적욕망이 사회적 금기와 시선으로 인해 죄책감이 되어 돌아옴을 느꼈다. 이러한 죄책감은 성적 욕망으로부터 스스로를 억압하지만 예술적 작업을 통해 벗어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본인의 성적욕망과 금기의 관계를 시각화 하여 그것을 향유하는 방법을 알리고자 한다. 본인은 성적 욕망과 금기와의 관계에 주목하며,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쾌락을 향한 쾌락적 행위를 작품 안에서 드러내고자 한다.

본인만의 성적 욕망의 충족 법 중 하나인 붉은색을 이용한 쾌락적 그리기는 수채화 물감의 물성을 이용한 번지기와 뿌리기의 평면 그림으로 표현된다. 본인의 뮤즈이자 영화 『로리타』에서 차용된 소녀 ‘로리타’는 본인을 투영시킨 매개체로 작품 안에서 나타나며, 그녀를 통해 본인의 욕망적인 시선을 담아내고자 한다.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이미지를 사진으로 기록하여 수집하는 컬렉션은 본인이 욕망적 시선으로 바라본 일상의 붉은색을 띤 풍

경과 붉은색을 가진 오브제를 이용한 작업이다. 평범한 일상을 욕망적 시선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성적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성적 상상과 욕망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성적 금기의 억압을 이용하여 쾌락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과, 반복된 삶속에서 지루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쾌락을 활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의 삭막함과 안정된 삶만 추구하는 지루한 일상에서 쾌락을 향한 일탈을 통해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쾌락적 일탈은 주체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개인의 존재적 가치와 정신적 자신감을 부여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4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4
1) 성적욕망의 억압과 충족	4
2) 사회적 존재의 일탈과 금기	8
3) 영화 ‘로리타’	12
① 영화의 내용	15
② 본인을 투영한 로리타	19
③ 로리타의 의미	21
2. 작품의 조형적 전개	24
1) 붉은색의 의미	24
2) 그리기 기법	27
3) 영화의 연속적 스틸컷	28
4) 이미지 컬렉션 (collection)	29
5) 비디오	31
3. 작품 분석	34
IV. 결론	52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로리타, 62.6×72.7cm, watercolor on canvas, 2014
- [작품 2] 로리타, 62.6×72.7cm, watercolor on canvas, 2014
- [작품 3] 무릎, 45.5×53cm(4), watercolor on canvas, 2014
- [작품 4] Instant Red - 드로잉, 29×21cm, watercolor on paper, 2014
- [작품 5] Instant Red - Inside, 15×30cm, archival pigment print on paper, 2014
- [작품 6] Instant Red, 15×15cm, archival pigment print on paper, 2014
- [작품 7] Instant Red - Nipples, 15×45cm, archival pigment print on paper, 2014
- [작품 8] Instant Red - Two some, 15×45cm, archival pigment print on paper, 2014
- [작품 9] Instant Red, 02:01min, video, 2014
- [작품 10] Instant Red - Red light, 30×30×10cm, red light in a white acrylic box, 2014

도 판 목 차

- [도판 1] 영화 <로리타 1997> 포스터, 인터넷 검색
- [도판 2] <로리타> 스틸
- [도판 3] <로리타> 스틸
- [도판 4] 영화 속 등장인물과 본인
- [도판 5] 님펫의 개념적 의미
- [도판 6] 로리타의 이중성
- [도판 7] <로리타> 스틸
- [도판 8] <로리타> 스틸
- [도판 9] <로리타> 스틸

I. 서 론

하위문화를 일컫는 서브컬처(Subculture)¹에서는 욕망이야말로 인간의 최고의 힘이며 최악의 힘이라고 표현하며 양날의 검에 비유하고, 어떤 관점에서서는 욕망이 모든 감정의 시초라고 보기도 한다. 본인은 이러한 관점에 공감하며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주요문화보다는 그와 반대되는 소문화(小文化), 하위문화에 관심이 있다.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욕망을 향한 욕구를 지니는데, 본인은 인간의 성적 욕망에 대해 주목한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²는 안전한 생존을 위해 일어나는 정신작용들 이외의 모든 인간 활동은 리비도³에서 발생한다고 해석한다.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생존과 관계된 욕구 이외에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모든 종류의 쾌락에는 성적인 요소가 반드시 개입되며, 인간이 가지는 정신과 신체의 모든 쾌락 욕구는 본질적으로 성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⁴

하지만 성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대상, 그리고 그 장소에 따라 제약이 따른다. 또한 이것에 대한 잘못된 표현과 충족은 금기에 반한 범죄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인류의 번식에 기초하는 가장 본능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욕구 이지만 한편으로는 금기에 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양날의 이중성이 존재 하는 것이다. 이 이중성의 한 가운데에는 사회적 윤리와 금기가 나뉘는 기준이 있다. 어디서부터가 윤리와 도덕이

1) 어떤 사회의 전체적인 문화, 또는 주요 문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위문화 또는 부차적 문화라고도 함, 독자적 특징을 나타내는 문화
2) 지그문트 프로이트,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 정신분석의 창시자, 히스테리 환자를 관찰하고 최면술을 행하며, 인간의 마음에는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꿈, 착각, 해학과 같은 정상 심리에도 연구를 확대하여 심층심리학을 확립하였다, 두산백과
3) 정신분석학 용어로 성본능(性本能), 성충동(性衝動)의 뜻, 두산백과
4) 프로이트와의 대화, 이창재, 학지사, 2003, p.190 인용

적용되며, 어디서부터가 금기인지 그 기준은 개개인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성적 금기의 기준을 딱 잘라 말할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 금기의 원어인 터부(Taboo)⁵의 의미에서도 상반된 이중적 모습을 보여준다. 독일의 심리학자 분트(Wilhelm Maximilian Wundt, 1832~1920)⁶는 터부가 한편으로는 신성한, 봉헌된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끔찍한, 무서운, 금지된, 순수하지 못한 등을 의미한다고 말한다.⁷ 터부의 신성하며 부정하다는 의미의 불분명함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느낀다.⁸ 본인은 이러한 금기가 시작되는 모호한 시작점과 터부의 이중적 의미에 흥미를 갖는다.

본인은 성적 욕망을 사회 안에서 당당히 드러낼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조르주 바타유(Georges Bataille, 1897~1962)⁹는 우리의 성행위는 은밀하게 행해져 왔고, 또한 그것은 어디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근엄한 인간적인 측면과는 대립적인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에로티즘¹⁰의 본질은 성적쾌락과 금기의 풀 수 없는 영김에서 얻어 진다고 한다.¹¹ 근엄해야 하는 인간상과 성욕을 충족시키는 본능적인 인간상에 대한 혼란스러움은 본인이 성욕에 주목하게 된 발단적 계기였다.

대학 시절 자유로운 이성 관계와 연애경험으로 나름대로 스스로의 성적

-
- 5) 신성하다고 인정된 사물·장소·행위·인격·말 등에 관해 접촉·사용을 억제하는 종교적 금기. 어떤 말이나 행동을 금하거나 꺼리는 것.
 - 6) 빌헬름 막시밀리안 분트, 독일의 심리학자, 생리학자, 철학자. 개인의 심리현상이 단순한 각종 요소의 결합, 요컨대 연합과 통각의 법칙을 갖는다고 하여 이 연구를 둘러싸고 구성적 심리학이라 불리우는 입장을 취했다.
 - 7) Totem und Tabu 토렘과 터부, 지그문트 프로이드(강영계 옮김),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p.33 인용
 - 8) 위와 같음, p.62
 - 9) 조르주 바타유, 프랑스 사상가, 소설가로 그의 책에서 다룬 죽음, 에로티즘, 금지, 침범, 과잉, 소비, 중여, 성스러운 것 등의 주제는 모두 지고성이라는 중심 테마에 수렴된다.
 - 10) 단어상 의미로는 성적 사랑과 사랑의 신을 나타내는 그리스어 에로스(Eros)에서 유래된 것으로(프로이드는 생명 본능을 지칭하는데 에로스란 용어를 사용), 성욕(sexuality)과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정신분석용어사전, 서울대상관계정신분석연구소
 - 11) 에로티즘, 조르주 바타유(조한경 옮김), 민음사, 2011, p.123

가치관을 정립시켜가려던 때에 『로리타』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고, 이 영화는 본인의 성적 가치관과 작업방향에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인 욕망하는 험버트와 유혹하는 로리타의 모습은 사회적 금기를 넘나드는 비이상적인 태도의 인물들이지만 본인은 그들을 통해 성적 욕망의 자극됨을 느꼈다. 그 후로 로리타는 본인의 뮤즈이자 욕망하는 본인을 투영한 매개체로 작품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로리타를 차용한 붉은 쾌락적 그리기와 일상생활에서의 붉은 이미지 수집은 성적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본인만의 예술적 충족 행위이다. 붉은 물감을 캔버스 또는 종이 위에 뿌리고 번지게 하는 행위를 통해 쾌락을 느끼고, 욕망적 시선으로 바라본 일상의 이미지를 재해석하는 작업은 지루한 일상에서 성적 즐거움을 더한다. 일상과 작업은 완전히 분리될 수 없으며, 예술 안에서 본인의 성적욕망을 충족하고자 한다.

본인의 작업은 사회 금기의 억압을 이용한다. 금기의 이용은 성적 쾌락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이자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다. 본인이 제시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일탈을 시도하고 두 번째는 일상에서 욕망하기, 세 번째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쾌락을 활용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1장에서는 인간의 억압된 성적 욕망과 일탈의 관계를 통해 금기를 욕망하는 본인의 모습을 고백하고 일탈의 방법과 필요성을 밝혔다. 2장에서는 성적 욕망을 향한 쾌락을 표현하기 위해 차용한 영화 『로리타』와 붉은 이미지 수집에 대해 그 형식과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본인의 작품 이미지에서 나타난 붉은색과 조형적 의미에 대해 서술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본인만의 방법을 제시하여 금기와 욕망을 통한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유하고자 함에 의의를 두며, 건강하고 바른 사회를 위해 사회적 존재로서 근엄함과 성 욕망적 본능에 대해 고민하는 본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II. 본 론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1) 성적욕망의 억압과 충족

본인은 사회에 의해 성적표현 자유의 제한을 느낀다. 성적인 것을 이야기 할 때 장소와 대화 상대에 따라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없었고 사회에서의 성적표현은 언제나 불편함 속에서 표현되어져왔다. 성인이 되기 이전에는 아직 미성숙한 인간으로써 성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언급은 사회가 바라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고, 성인이 된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남자일 경우보다 순결해야함을 강요받는 느낌 때문이었다. 이것은 여성으로서의 사회 차별적 문제보다는 남자인 경우에도 짐झ고 존엄한 인간으로 비춰지기 바라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무의식적 억압을 말한다.

미셸 푸코(Michel Paul Foucault, 1926~1984)¹²는 우리가 오랜 세월동안 성적인 것들에 대한 부정과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억압으로 몰아가는 특이한 문명을 이룩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섹스를 명확한 말로 표명하고 섹스의 가장 적나라한 실체를 밝히려 애쓰며 섹스의 영향력과 효력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면서도, 섹스가 부정된다고 단언하고 우리가 섹스를 감춘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며 우리가 섹스를 침묵으로 몰아간다고 말하기에 이르르게 되었는지의 의문을 제기한다.¹³

12) 미셸 푸코, 프랑스의 철학자, 정신의학에 흥미를 가지고 연구했으며 서양문명의 핵심인 합리적 이성에 대한 독단적 논리성을 비판하고 소외된 비이성적 사고, 즉 광기(狂氣)의 진정한 의미와 역사적 관계를 파헤쳤다.

한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인간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중심 욕동은 성욕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정신분석 치료 과정에서 내담자들은 저항 국면을 넘어서면 깊은 무의식적 욕망을 드러내는데 이때 그들의 욕망은 보편적으로 성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¹⁴ 인간의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는 순화되지 않는 동물성이며 리비도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신경증, 도착증 등 정신병이 생겨 육체에 병으로 나타난다고 한다.¹⁵ 그리고 모든 인간은 아기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고 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선천적으로 성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¹⁶

푸코의 견해로 보았을 때 본인이 느꼈던 억압은 스스로의 억압이었던 것이다. 성적 억압은 극복하고 해방되어야 할 억압이 아닌 끊임없이 담론화 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프로이드의 연구 결과에서는 우리가 평생 성욕을 내부에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무의식에서 부터 시작된 억압의 느낌 역시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시켜 준다.

한편 고대 철학자들은 성적 욕망에 대한 쾌락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플라톤(Platon, B.C.428~347)¹⁷은 성적 활동에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제한, 즉 공포와 법률과 진리의 담론을 강제로 부과해야 한다고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322)¹⁸는 욕망의 자유는 아이가 스승의 명령에 따르듯 이성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으며, 쾌락주의자 아리스티포스(Aristippos, B.C.435~366)¹⁹도 자신은 끊임없이 쾌락을 이용하면서도 사

13) 성의 역사1 앞의 의지, 미셸 푸코(이규현 옮김), 나남출판, 2004, p.32

14) 프로이트와의 대화, 이창재, 학지사, 2003, p.181 인용

15) 잉여 쾌락의 시대, 권택영, 문예출판사, 2003, p.31

16) 프로이트와의 대화, 이창재, 학지사, 2003, p.178 인용

17) 플라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생애를 교육에 바쳤다, 초월적인 이데아가 참된 실재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전개하였고, 철학자가 통치하는 이상국가의 사상으로 유명하다, 저서<소크라테스의 변명>, <향연>, <국가>

18)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오학파의 창시자이며 고대에 최대의 학문적 체계를 세웠고, 중세의 스콜라 철학을 비롯하여 후세의 학문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저서 <형이상학>, <오르가논>, <자연학>, <사학>, <정치학>

19) 아리스티포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키레네학파를 창시하였으며

람들이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성적 활동이 악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적 활동의 어떤 힘, 그 자체로 과도함의 경향을 지닌 에너지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육체에 관한 기독교 교리에서는 쾌락의 과도한 힘을 타락, 그리고 인간 본성의 과오에서 찾는다. 기독교와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는 이런 힘에 어떻게 맞서느냐, 어떻게 그것을 제어하며 알맞는 관리술을 확보하느냐 하는 식의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²⁰

그러나 본인은 어느 순간은 성적욕망의 충족을 위한 쾌락을 향해 휩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말처럼 우리의 성적활동이 과도화에 이르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 성적욕망의 자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쾌락의 진실은 타락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순수한 모습임을 밝히고자 한다.

현대사회의 소비문화와 대중문화 속에 살고 있는 본인은 욕망적 삶을 추구한다. 모든 일의 실행 이전에는 ‘무엇을 하고 싶다’는 욕구에서부터 시작된다. 본능에서부터 시작된 성적 욕망 역시 솔직한 욕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의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라캉(Jacques Lacan, 1901~1981)²¹은 요구라 한다. 요구는 상호적이고 타자를 의식 하는데, 인간은 유아일 때부터 자신의 결핍을 만족시켜줄 대상이라 생각하는 타자 어머니에게 요구한다. 이 요구에는 단순히 영양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신을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사랑의 요구가 섞여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요구를 전부 다 채워줄 수가 없으며, 여기서 생기는 분열과 채워지지 않고

궁극의 선을 쾌락으로 보는 철저한 쾌락주의자

20) 성의 역사2 쾌락의 활용, 미셸 푸코(문경자, 신은영 옮김), 나남출판, 2004, p.66 인용

21) 자크 라캉, 프랑스의 정신의학자, 구조언어학을 정신분석에 적용하였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구조주의와 언어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러한 해석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시도한 일종의 또 다른 정신분석학으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철학사전, 2009, 중원문화

남는 무언가 잔여물이 바로 욕망이다. 욕망은 어떠한 만족으로도 채워지지 못하고 언제나 결핍으로 남는다. 욕망은 만족을 위한 갈망도 아니고 사랑의 요구도 아니며, 사랑의 요구와 만족을 위한 갈망에서 생기는 ‘차이’, ‘틈새’, ‘분열’의 현상이다.²² 따라서 성적욕구의 충족에서 오는 쾌락은 욕망의 충족을 위한 것이다.

쾌락은 긴장이 고도로 누적 되고나서 방출이 오는 것으로 프로이드는 그의 저서 『문명속의 불만』에서 원초적 욕망에 탐닉하여 얻는 행복감이란 자제하는 욕구에서 오는 만족이며 강도가 높고 억제할 수 없는 도착적 욕망이나 금지된 것에 대하여 느끼는 매력에 대해 언급하였다.²³ 여기에서 쾌락을 극대화 시키는 원리에 대해 알 수 있다. 금지된 것에 대한 자제하는 억압감을 통해 얻어지는 쾌락은 만족의 강도가 크다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억압이 금지를 위한 억압이 아닌 쾌락을 위한 억압으로 촉매제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국의 철학자 라일(Gilbert Ryle, 1900~1976)²⁴은 쾌락을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우리는 흔히 말하듯이 쾌락을 위하여 취미, 흥미, 취향을 쫓아 가기 따르는 행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말은 이것을 행하는 이유가 어떤 소득을 예상하고 있다는 시사를 안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바 우리는 좋아서 또는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결코 거기 따르는 무엇이 있으므로 그것을 노리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낚시꾼은 낚시질하는 것 말고 다른 쾌락을 바라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낚시질이 즐거워서 하는 것이지 다른 무엇이 낚시질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²⁵ 이와 같이 쾌락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통해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욕망의 전복, 페더 비트머(홍준기, 이승미 옮김), 한울아카데미, 1998

23) 문명속의 불만, 지그문트 프로이드(김석희 옮김), 열린책들, 2004

24) 길버트 라일, 영국의 철학자, 언어철학의 지도자

25) 고통과 쾌락, 토마스 자즈(이남표 옮김), 학지사, 1995, p.200

2) 사회적 존재의 일탈과 금기

본인은 충동이 지루하고 무기력한 삶에 에너지를 부여한다고 믿는다. 충동의 특징은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살아있는 유기체에 내재하는 충동과 감정이 분리되지 않은 ‘열망적 힘’(Drang)²⁶이며, 외부의 힘에 반응하는 신축성이거나 또는 유기적 생명 안에서의 관성의 표현이다.²⁷ 본인의 충동적 행위는 반복되고 지루한 삶의 연속성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의지의 발현이다. 충동은 예측불가에서 오는 긴장과 흥분의 떨림이 있으며 이 과정자체로의 즐거움이 있다. 또한 본인은 충동적 행위를 통해 순간적 희열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충동적 행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다.

본인은 충동적 행위를 통한 일탈을 즐긴다. ‘일탈’은 공동체나 사회에서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이다. 본인의 일탈은 대부분 성적인 것인데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성적금기에 대한 도전적 행위이다. 충동적으로 도전된 일탈은 사회가 정해놓은 방식에 도전한다는 반항적 우월감을 느끼게 한다. 반복되는 무기력한 삶에서 본인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일탈적 경험을 통해 본인은 존재적 특별함을 느끼게 된다.

역사철학의 관점에서는 현대사회의 대량생산으로 평범하고 비개성적인 특성이 인간의 모습으로 반영되며 개체는 그 개체가 지닌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흡수되어 버림으로서 자아에 대한 갈등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자신의 안정된 삶의 방식이라는 명목아래 발전 없이 한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모든 사고의 중심과 행동을 보편적인 대중과 맞추다 보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불안정한 모습으로 살아

26) 감정충박 이라고도 말해지는 쉐러의 철학적 인간학의 기본 개념, 감정충박은 이미 명확한 방향성과 목표성을 갖춘 ‘충동’과 상태적인 감정이 분리되지 않은 단계인바, 의식도 감각도 표상도 결여한다.

27) Jenseits des Lustprinzips 쾌락의 원리 저편, 지그문트 프로이트(강영계옮김),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p.71 인용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²⁸ 본인은 비개성적 사회현상을 부정하며 일탈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성적 일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 사회의 규범과 부딪히는 갈등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 일탈은 그것을 해소해주고 다시금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 충동은 용기가 되어 일탈을 도울 것이고, 지루하고 반복된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회복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성적 일탈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고 그에 따른 본인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었다.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 1949)²⁹은 라캉이 성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한 것은 다시 말해 곧바로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해 우리에게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천천히 가기 위해 제3자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³⁰ 우리의 삶에서 성적욕망 또는 쾌락을 위한 일탈은 제3자의 역할을 하며 움직임이자 반복을 생성한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지쳐 멈추지 않기 위해 필요한 여분인 것이다. 이것은 사회와 일탈의 필연적 관계임을 말해주며, 우리는 이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사회적 존재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일탈은 계속 되어야만 한다.

본인은 공공장소나 야외에서 애인과의 성행위를 통해 사회 규범의 금기와 타인의 시선이 개입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함으로 인해 성적 욕구의 분출이 극대화 되는 것을 느꼈다. 개인적 공간이 아닌 타인이 존재 할지도 모르는 공공장소 또는 야외에서의 성행위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풍기문란이라는 범죄의 금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해본 하나의 성적 경험 중 하나이다. 금기와 금기의 위

28) 역사철학, 김종호, 서울 동명사, 2001

29) 슬라보예 지젝, 라캉과 마르크스, 헤겔을 접목한 철학으로 서유럽 학자들이 동유럽의 기적으로 지칭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잉여쾌락이론, 실재계와 상징계 등을 제시했다.

30) 잉여 쾌락의 시대, 권택영, 문예출판사, 2003, p.24

반은 이렇게 우리의 실제 삶속에 존재한다. 우리가 금기를 인지하고 그것을 위반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상상을 통해 그것이 불러 올 끔찍한 결과가 두려워서 이다. 하지만 금기를 인지하고 상상한다는 것은 금기를 위반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미 우리의 내부에 있기에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바타유는 인간을 놓고 볼 때, 쾌락의 현현 없이는 금기가 있을 수 없고 금기의 느낌 없이는 결코 쾌락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³¹ 이 관계는 피비우스의 세계와 같다. 피비우스의 띠는 예측할 수 없고 모호하게 꼬인 표면 두 끝이 연결된 것으로 꼭대기 또는 바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 면을 가진 표면으로 이루어졌다. 그 표면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나 그 띠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³²

우리는 오랜 시간 윤리적 사회 규범과 도덕적 문화 속에 살면서 이성적이고 금욕적인 인간이 되어야 함을 강요받아 왔다. 본능을 우선시하는 것은 동물에 가까우며 사회적 인간이기에 그것을 스스로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하며, 존엄한 인간상을 향한 사회의 체면의식은 우리의 성적욕구를 폐쇄시켰다. 우리의 가장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즐거움인 성적인 것에 대한 욕구를 뒤로 드러내고 숨어서 지켜보며 인류의 번식에 기초하는 우리의 가장 솔직한 동물성은 음지로 숨어들었다. 성적 본능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지로 몰고 숨기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가장 솔직한 동물적 본능이 잘못된 방법으로 충족될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반대의 관점에서는 쾌락의 활용을 자기 자신을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 쾌락을 지배하고 굴복시키고 억제하여야 한다고³³ 말하지만 본인은 쾌락을 이용하여 스스로가 주체가 되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써 주체가 되기 위해 일탈할 줄 알아야 한다.

31) 에로티즘, 조르주 바타유(조한경 옮김), 민음사, 2011, p.123

32) 사드의 철학과 성윤리, 티모 에이락시넨(박병기, 장정렬 옮김), 도서출판 인간사랑, 1997, p.10

33) 성의 역사2 쾌락의 활용, 미셀푸코(문경자, 신은영 옮김), 나남출판, 2004, p.80

사회는 우리의 성욕이 고상한 문화적 대상에서 승화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프로이드는 문화적 대상으로 성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 소수마저도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소수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신경증에 걸리거나 이런저런 해를 입고 대다수는 체질적으로 금욕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에 부합하다고 한다. 억눌린 리비도는 약한 부위를 찾아내어 그곳을 무너뜨리고, 병증이라는 형태의 신경증에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는 신경병이 늘어나는 원인이 현대사회의 강화된 성적제약에 결정적 요인이 있다고 확신한다.³⁴

그러나 사회의 모든 성적 욕망을 드러내고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문란한 사회가 될까 우려하는 관점을 무시하는 아니며, 다만 성적욕망과 쾌락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자 한다. 본인은 쾌락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젝의 잉여쾌락³⁵의 이론을 대입해 보았다. 잉여는 어느 한쪽으로 고정할 수 없는 두 개의 대립관계를 억지로 한쪽에 고정시키면 언제나 남아도는 여분을 의미한다. 잉여는 대립관계를 통해 움직임을 낳지만 두 항의 어느 한쪽과 일치할 때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음이 있어야 양이 순환하듯이 두 항의 움직임은 잉여에 의해 일어난다. 음과 일치해도 여분이 남고, 양과 일치해도 여분이 남기에 음과 양이 순환할 수 있다. 밤은 휴식이며 낮은 노동이다. 우리는 노동만으로도 살지 못하고 휴식만으로도 살지 못한다. 낮에 쌓인 피로는 밤에 풀어야하고, 밤의 휴식은 낮의 노동 덕분에 의미를 갖는다.³⁶ 욕망과 쾌락은 잉여이다. 사회적 존재와 욕망적 존재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한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욕망은 지루한 삶을 순환시키는 힘이다.

34) 문명속의 불만, 지그문트 프로이드(김석희 옮김), 열린책들, 1998, p.23 인용

35) 슬라보예 지젝의 잉여쾌락 이론, 욕망이 대상의 고유 가치와 교환 가치의 차액인 잉여 쾌락에 의해 지속된다고 말했으며, 잉여쾌락은 마르크스의 상품분석에서 나오는 잉여가치를 정신분석에 차용한 개념

36) 잉여 쾌락의 시대, 권택영, 문예출판사, 2003, p.23 인용

3) 영화 '로리타'

영화 『로리타』는 본인에게 특별한 경험의 매체였다. 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두 주인공의 욕망적 태도와 금기적 관계가 본인의 성적욕망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본인도 잘 알지 못했던 본인의 속마음과 닮아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솔직한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스스로 조차 뚜렷하게 알 수 없었던 본인의 내면은 『로리타』를 통해 이야기화 되면서 점차 그 모습을 정확히 들여다 볼 수 있었고, '나'라는 존재를 파악하고 정립해 나갈 수 있었다.



[도판 1] 영화 <로리타 1997> 포스터

로리타는 본인의 작품 안에서 본인의 욕망을 투영한 뮤즈가 되어 나타난다. 붉은색 수채물감을 이용한 쾌락적 그리기를 통해 로리타의 관능적인 표정과 몸짓에서 물처럼 흐르고 변져나는 자유로운 성적욕망을 드러낸다.

영화는 12살 소녀와 38살 남성의 관계를 사랑 또는 비이상적인 모습으로, 관계를 정의할 수 없는 이야기로 전개 된다. 사회 윤리적 관점으로 보자면 어린 소녀를 탐하는 파렴치한 가해자와 어리고 순수한 피해자의 관계처럼 보여 진다. 하지만 이것은 본인의 관점으로는 그리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왜 로리타는 그토록 매력적이며 험버트를 유혹하는가, 험버트는 왜 로리타를 욕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본인은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되었고 사회 규범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쉽게 풀이되어질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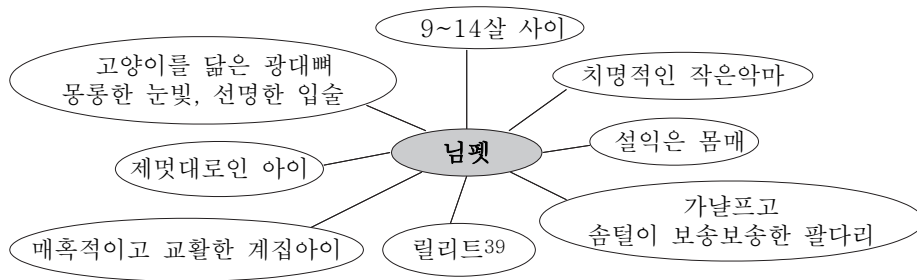
본인의 관점에서는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에서 사랑 또는 성적인 관계에 빠져서는 안 될 나이의 제한과 법적으로 엮인 부녀관계를 떠나 욕망하는 자와 유혹하는 자의 본능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 졌고, 둘 중 누구도 가해자와 피해자로 분리할 수 없었다. 또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순수한 사랑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사랑으로 포장된 근친상간 또는 소아성에 문제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본인에게 영화 『로리타』가 담론을 제기하는 부분은 첫째,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우리의 삶에서 진실과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사건들은 타인의 경험적 시선이 개입된 판단에 의한 해석이다. 과연 로리타와 험버트를 둘러싼 진실은 온전한 둘만의 진실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하는지와, 아니면 사회를 반영한 도덕적 판단으로 바라본 해석이 그들의 진실이 되어야 하는지 이다. 둘째, 로리타를 사랑한 이유로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 험버트의 고백을 듣고 있다면 본인역시 그에 편에 서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어느 사소한 순간은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그의 죄는 사랑과 정신병, 유혹과 욕망, 금기와 쾌락의 관계가 갖는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본인은 이 두 가지의 이유에서 영화 『로리타』를 바라보는 본인과 타자의 정의 할 수 없는 이중적 태도라는 공통점을 찾았다. 경계가 모호하고 이중성을 띠는 내용은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과 닮아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로리타』는 본인에게 끝나지 않는 담론이 되었다.

본인에게 『로리타』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오직 험버트의 욕망적 시선으로 로리타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 중 흥미로운 부분은 험버트가 로리타를 자신만의 욕망적 상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다. 험버트의 이야기는 본인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것을 통해 욕망의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로리타 뿐만 아니라 로리타와 같은 부류의 소녀들을 님펫(Nymphet)³⁷이라는 제한적 개념으로 일컫는다. 험버트가 말하기를 ‘아홉 살에서 열네 살 사이의 소녀들 중에는 자기보다 나이가 두 배 또는 몇 배쯤 많은 나그네 앞에서 참된 본성을 드러내는 아이들이 더러 있다. 자기에게 매료된 나그네에게 그들은 인간이 아닌 님프의 모습(즉 마성)을 보여주는데, 나는 이 선택받은 소녀들을 님펫이라 부르고 싶다’고 말한다.³⁸ [도판2]는 님펫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나열한 것이며 험버트의 욕망적 대상을 나타낸다.

[도판2] 님펫의 개념적 의미



“로리타, 내 삶의 빛, 내 몸의 불이여. 나의 죄, 나의 영혼이여. 로-리-타.아침에 양말 한 짝만 신고 서 있을 때 키가 4피트 10인치인 그녀는 ‘로’, 그냥 ‘로’였다. 슬렉스 차림일 때는 ‘롤라’였다. 학교에서는 ‘돌리’, 서류상으로는

37) nymphet: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요정 ‘님프(nymph)’에 지소 접미사 ‘-et’를 붙인말로, 아름다운 여자를 뜻한다. 나보코프는 그의 소설 「롤리타」에서 특히 성적 매력이 넘치는 사춘기 소녀라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하였다.

38) 롤리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김진준 옮김), 문학동네, 2013, p.28

39) Lilith: 유대신화에 등장하는 악녀, 인류 최초의 여자로 아담의 첫 아내였으나 음탕하고 사악하여 낙원에서 추방되었다. 나보코프는 지옥에서 마성의 여성에게 유혹당하는 내용의 에로틱한 시 「릴리트」를 러시아어로 썼는데, 발음이 로리타와 유사하다.

‘돌로레스’. 그러나 내 품에 안길 때는 언제나 ‘로리타’였다.”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는 로리타의 이와 같은 이미지는 모두 험버트의 상상력으로 재해석된 결과이다.⁴⁰ 오로지 그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로리타』는 철저한 그의 욕망적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다. 험버트의 상상 속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것을 작품 안에 담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다. 그의 상상은 순수한 욕망의 이야기이며 상상 그자체로 눈부시게 아름답기 때문이다.

① 영화의 내용

극중 38살 험버트는 겉으로 보기엔 고고한 신사처럼 보이지만 어린 아이 같은 소녀들을 사랑하는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심리를 가졌다. 험버트가 12살이었을 때 첫사랑이었던 애나벨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는 매우 좌절한다. 그 후 그가 사랑하는 대상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소녀로 멈춰버렸다. 첫사랑 애나벨에 대한 트라우마로 험버트는 애나벨과 비슷한 나이의 소녀들을 욕망하게 되고, 어리지만 관능적인 매력을 가진 님펫을 찾아 헤매게 된다. 험버트는 새로 이사한 하숙집에서 드디어 그가 찾던 님펫 로리타를 만나게 된다. 하숙집 주인의 딸이었던 로리타에게 첫눈에 반한 그는 로리타의 곁에 있기 위해 과부인 그녀의 엄마와 결혼하고 그녀의 양아버지로 함께 살게 된다. 순수하고 어리지만 치명적 관능의 매력을 가진 로리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방지축 말괄량이 소녀였고 험버트와 단둘이 있을 땐 그를 유혹하기도 하는 되바라진 요부였다.

하지만 험버트는 욕망에 가득 찬 속내는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로리타를 바라보며 상상만 하는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그녀의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자 험버트는 양아버지라는 책임아래 사랑하는 그녀와 미국

40) 로리타 혹은 욕망이란 이름의 글쓰기, 박승현, 경희대학교대학원, 2014, p.40

전역을 여행하며 로리타를 소유하고자 한다.

험버트는 사랑하는 대상이자 욕망의 대상으로서 로리타를 바라보기는 했지만 쉽게 그 선을 넘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로리타의 치명적인 유혹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험버트는 법적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근친상간이라는 금기에 이르게 된다. 사회적 시선이 두려웠던 험버트는 불안해하지만 끝까지 로리타를 자신의 곁에 두려고 노력한다. 험버트의 집착으로 로리타는 험버트의 세상이 지겨워졌고, 그녀가 동경했던 켈티 라는 극작가와 함께 달아난다. 로리타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자 험버트는 좌절했고, 몇 년 후 로리타에게 편지 한 통을 받고 그녀를 만나러 간다.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만삭의 몸을 한 로리타는 법적 아버지 험버트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그러나 험버트는 자신과 함께 달아나자고 제안하였고, 로리타는 이를 거절하며 험버트를 슬픔에 빠트린다. 그리고 험버트는 더 이상 로리타에게 님펫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좌절한다. 자신의 사랑스런 님펫 로리타를 잃은 이 모든 상황이 원망스러웠던 험버트는 로리타를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켈티를 찾아가 그를 총으로 쏘 죽이고 험버트도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영화 『로리타』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 한 작품이다. 영화의 원작이 소설인 경우는 시나리오가 시적인 응축성을 지니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의해 그것이 영화화되면, 영화는 원작보다 생동감 넘치면서, 시청각적인 요인의 부가가치를 얻게 된다고 한다.⁴¹⁾ 본인은 이와 반대로 영화를 감상한 뒤 소설을 읽은 경우인데, 책 속의 문장을 읽어 나갈 때마다 영화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상상되면서 그 감정과 감각은 더 극대화 되는 것을 느꼈다. 본인만의 감각 속의 『로리타』는 이로써 더욱 풍부해 졌다.

본인이 소설보다 영화를 작품의 소재로 삼는 것은 영화화 된 『로리타』

41) 영상문학:감성의 진폭, 송희복, 도서출판 월인, 2014, p.4 인용

를 먼저 접한 이유에서 이기도 하지만 영화에 연출된 이미지에 단단히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등장하는 인물에서부터 화면 안에 보여 지는 풍경, 소품, 음악 등 어느 것 하나 『로리타』라는 영화의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이 로리타와 험버트를 위한, 원래부터 그렇게 존재했던 것처럼 완벽했다.

극중 로리타를 연기하는 도미니크 스웨인(Dominique Swain, 1980~)은 로리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로리타의 완전체를 보는 듯 했다. 그녀가 로리타를 연기 할 당시 열여섯 살의 소녀였고, 그 자체로 어린 아이와 어른의 경계에서 방황하는 모호한 여자 소녀였다. 그녀의 붉은 뺨과 입술에서 천진난만하게 묻어 나오는 천박한 웃음소리, 10대 취향의 패션과 소품 그리고 양 갈래 머리 헤어스타일을 소화하는 덜 성숙된 신체는 본인의 감정과 감각에 로리타의 이미지를 완전히 각인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험버트 역할을 맡은 제레미 아이언스(Jeremy Irons, 1948~) 역시 젊고 잘생긴 신사의 이미지와 부합 했다. 영화의 등장인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경이 되는 상점과 호텔, 식당, 카페는 상황에 어울리는 영화 음악과 함께 본인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완벽한 미장센(mise en scene)⁴²이었다. 그러나 『로리타』의 미장센은 한편으로 그것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을 단순하고도 쉽게 보여주는 것 같아 유치하게 보여 질 수도 있다. 아래 [도판 3]에서 연출되는 상황에서도 보듯이 붉은색 립스틱을 칠하고 바나나를 먹는 로리타의 모습은 마치 남녀의 성관계를 상징하는 듯 보여 진다. 여성성을 상징하는 빨간색 립스틱을 칠하고, 남자의 성기와 유사한 모양의 바나나를 먹는 로리타의 모습을 화면에서 정면으로 보여줘야만 했는지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뻔함이다. [도판4]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돈되지 않은 남자의 셔츠를 입고,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이 분명하

42) 미장센, 무대 위에서의 등장인물의 배치나 역할, 무대 장치, 조명 따위에 관한 총체적인 계획.

게 보여 지는 로리타의 입술에 변진 립스틱 자국은 성적인 상상을 불러일으
키기에 충분히 많은 것을 보여준다.



[도판3] <로리타> 스틸



[도판4] <로리타> 스틸

여성의 입술은 음순의 의태로서 광고에서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남성의 성기와 유사한 것, 이를테면 아이스크림이나 립스틱, 마이크와 같은 것이 벌린 입술 사이로 접근하는 영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탕을 물고 있는 붉은 입술이 광고에 자주 이용된다고 한다.⁴³

본인은 영화 『로리타』의 성적 요소들이 내포하고 있는 성적 의미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상상하게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배드윈에서 조차 노출을 시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청소년 관람 불가의 성인 영화보다 성적인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분명히 성적으로 보여 지지만 직접적인 상황으로 이끌지 않는 연출 방법은 그저 뻘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았다. 욕망에 둘러 쌓인 험버트와 사회적 존재로서 험버트의 이중적 시선을 통해 묘사되는 로리타를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 같아 솔직하게 느껴졌다. 보여 지는 사실보다 우리의 욕망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② 본인을 투영한 로리타

본인은 영화를 보고 로리타를 향한 험버트의 욕망에 대해 비난보다는 오히려 그의 욕망에 공감하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험버트에 대한 공감의 감정이 처음에는 단순한 상상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점점 그 감정이 본인의 솔직한 내면의 모습임을 알게 되었다. 본인은 험버트의 욕망을 매우 이해하고 있다. 로리타는 숨 막히게 관능적이며 매력적이고 그녀를 탐하지 않고는 그녀의 유혹을 버틸 수 없었다는 것을 매우 인정하는 바이다. 사회는 이러한 금기적 관계에서 욕망의 감정을 금지하며 행여 욕망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참고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고 그것이 존엄

43) 영상으로 말하기, 최상식, 시각과 언어, 2001, p.66

한 사회적 인간으로써 마땅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본인은 비난의 대상이 될지언정 가장 솔직한 것을 좋아한다. 과연 로리타와 같은 완벽한 욕망의 결정체의 모습의 존재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욕망을 상상조차 하지 않을 이가 존재 하는가 이다. 본인은 이것을 견뎌낸다는 사람과 욕망에 못 이겨 휩쓸리는 사람 둘 중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어쩌면 그것은 가장 철저한 거짓일 수 있고, 가장 솔직한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금기의 모습은 무엇이며 거기에 도전하는 욕망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사회 안에서 윤리적 심판에 얽매이는 우리의 욕망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어졌다. 본인은 작업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정해진 답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으며 욕망하는 자체의 순간, 금기와 욕망의 경계. 단지 욕망의 솔직한 모습을 마주하고 싶었다.

로리타는 본인을 투영하고 있지만 험버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본인이 험버트를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 역시 로리타의 치명적인 매력에 이끌렸기 때문인데, 작품 안의 로리타에게는 험버트의 시선으로 로리타를 욕망하는 본인과 로리타가 되어 험버트를 유혹하는 본인의 모습이 섞여 있다. [도판 5]는 로리타와 험버트 사이에서 존재하는 본인의 솔직한 입장을 밝히는 표이다.

[도판5] 영화 속 등장인물과 본인

	로리타	본인	험버트
나이	10대 신체와 정신적으로 미성숙	20대 신체적으로 성숙하나, 정신적인 미성숙	40대 신체와 정신적으로 성숙
역할	유혹하는 자	욕망하고 유혹하는 본인	욕망하는 자
욕망의 대상	40대의 의붓아버지	10살 이상 연상의 상대와 연애 경험이 있음	10대의 의붓딸
취향	교양과는 거리가 먼 저급하고 자극적인 십대 문화	저급하고 자극적인 문화를 좋아하지만 교양 있는 인간상을 추구	문학적이고 교양 있는 신사적 취향
사회 금기 의식	금기에 대해 깊게 생각 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함	금기에 대한 일탈을 시도 하지만 금기에 대한 억압이 내부에 존재함	금기와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하며 성적 욕망을 숨기려 함

③ 로리타의 의미

나보코프의 소설 『로리타』의 이름에서부터 유래된 ‘로리타 콤플렉스’, ‘로리타 신드롬’은 현대 사회에서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어 지는데 어린 소녀에게 성적인 집착이나 도착증을 보이는 것, 또는 원조교제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로리타가 사회 윤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욕망의 대상화되는 것이 금기이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로리타는 자체의 의미가 부정적인 시선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 규범 안에서 이야기이다. 그 틀을 벗어난다면 그녀를 욕망하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본인에게 로리타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에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로리타는 금기로 통하는 문과 같다.

한국판 『로리타』로 불리는 영화 『은교』⁴⁴는 어린 소녀와 나이든 남자

의 관계를 사랑 또는 욕망의 시선으로 비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은교』는 본인의 작업의 소재가 되지는 못했다. 두 영화의 인물인 로리타와 은교, 험버트와 이적요가 보이는 다른 태도의 이유에서 인데, 인물의 다른 태도로 인해 이야기의 흐름도 다르게 흘러간다. 로리타는 험버트를 유혹하며 되바라진 요부가 되는 것을 자처하지만 은교의 태도에는 이적요를 향한 의도된 유혹은 없으며 순진하고 선한 소녀로 남고자한다. 험버트는 욕망의 대상인 로리타와 욕망적 관계를 맺고 그녀를 자신의 욕망 안에 가두려하다 파멸을 맞이했지만 이적요는 오로지 상상 속에만 그녀를 욕망하며 지극히 도덕적인 결말을 위한 태도를 보인다. 『로리타』가 본인의 가장 솔직한 욕망을 자극 하였다면 『은교』는 사회적 존재로의 방어막을 유지하고 욕망은 채워질 수 없다는 아쉬움만 남긴다. 어쩌면 본인은 『로리타』를 통해 가상의 현실에서 본인의 욕망을 실천했으며, 『은교』에서는 현실의 벽과 부딪혀 패배된 욕망을 느꼈을 것이다. 욕망을 실천하고 파멸을 맞이한 『로리타』는 본인의 가슴이 두근거리게 하는 환상을 의미하며, 패배된 욕망을 안고 도덕적 결말을 맞이한 『은교』는 지루한 현실을 의미한다.

욕망의 환상을 만드는 험버트의 흥미로운 이론에서는 어떤 남자가 님펫의 마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데에는 두 남녀 사이에 일정한 나이 차이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적어도 10년, 일반적으로는 30년이나 40년, 몇몇 알려진 사례에서는 많게는 90년까지 나이 차가 나기도 한다고 한다. 이는 님펫을 향한 초점을 맞추는 데 필요한 거리인데, 그렇게 둘 사이에 차이가 있어야 비로소 마음의 눈이 전율하며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이 뚜렷이 대조되어야 비로소 남자의 정신이 여자를 인식하고 놀라움과 더불어 도착적인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⁴⁵ 험버트의 이론은 본인이 쾌락

44) 박범신 작가가 쓴 소설 ‘은교’를 2012년 정지우감독이 영화화한 작품으로 영화 ‘로리타’와 비슷한 소재와 담론을 갖는다.

45) 로리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김진준 옮김), 문학동네, 2013, p.30

을 극대화시키는 방법과 유사하다. 험버트는 나이차를 통해 님펫 또는 로리타를 향한 욕망을 극대화 시켰다. 나이차가 커질수록 금기의 힘은 강해지고 대상에 대한 특별함은 더욱 커진다고 보았다.

영화 속 험버트는 그만의 특별한 시선으로 평범한 소녀를 욕망의 ‘로리타’로 재탄생시켰다. 그러나 바라보는 타자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 로리타는 금기와 욕망을 넘나들게 된다. 로리타는 사회와 금기의 세계 사이에 존재하며 어느 쪽으로도 속할 수 있다. 그녀는 순수하지만 순결하지 않고 아름답지만 천박하며 욕망적이며 유혹하는 이중적 인간의 모습이다. [도판 6]의 표와 같이 극단적이면서도 모호한 이중성을 보여주는 로리타는 사회적 인간상과 욕망적 인간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본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도판6] 로리타의 이중성

로리타의 이중성	
순수한 로리타	타락한 로리타
소녀	여자
어리다	어리지 않다
순수하다	순결하지 않다
천사	요부
아름답다	천박하다
갓 피어난 꽃	잠깐뿐인 찰나의 꽃
희극	비극
윤리와 도덕	욕망과 유혹
피해자	가해자
금기의 대상	욕망의 대상

2. 작품의 조형적 전개

1) 붉은색의 의미

본인의 작품 안에서 주로 드러나는 붉음은 성적욕망을 상징한다. 붉음은 빨강을 의미하지만 본인이 굳이 붉음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일률적 색감을 띠는 빨강보다는 농도의 변화를 통해 투명하면서도 불투명함을 품은 붉음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빨강색 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차가움과 따뜻함이 함께 있고 투명하면서 불투명하며 묽지만 되직한 그런 것을 말한다. 본인에게 붉음은 단순한 빨강과 달리 유동적인 색감이다. 끊임없이 흘러 움직이며 본인의 감정을 순환시키며 향유하는 색이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붉은색이 존재하며 그 색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떤 색과 함께 있는지 혹은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전달한다. 또한 같은 의미를 상징하는 색이라 하더라도 역사적인 사건이나 문화적 차이,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붉은색의 이미지만으로도 우리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이미지와 색이 가진 상징적 에너지가 만나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공포, 죽음, 위험, 성, 사랑 등 이러한 것들이 이미지로 표현될 때 주로 붉은색으로 나타내어진다. 성적인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색은 붉은색이다. 사랑과 에로티즘의 색(정열의 색과 그 정열로부터 오는 위험의 색, 매혹과 유혹의 색, 매춘부의 색, 빨간 속옷-방탕으로 유혹하는 속옷, 죄의 색-특히 육체로 말미암은 죄의 색, 금기의 색-위반의 색)⁴⁶, 이것은 성적인 의미에서 붉은색을 나열한 것이다. 성적인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붉은색은 그 의미의 전달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46) 미셸 파스투로의 색의 비밀, 미셸 파스투로, 미술문화, 2003, p.24

상투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영화 『로리타』의 성적 상상을 일으키는 뻔한 장면들처럼 가장 솔직한 표현방법이며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은 원피스를 입었을 때보다 붉은 립스틱을 칠하고 붉은 원피스를 입었을 때 좀 더 성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것처럼 일상의 오브제에 붉은색을 이용하여 성적욕망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붉은색은 본인의 작품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조형적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처음 『로리타』를 소재로 작업을 시작할 때 떠오르는 것은 로리타의 붉은 이미지들 이었다. 영화 속 장면들에 분포된 수많은 붉은색들은 시각적 즐거움과 욕망적 시선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기억 속에 남았다. 영화 속 로리타는 항상 붉은색을 지녔다. 앳된 얼굴 위로 붉게 물든 그녀의 뺨, 붉은 입술, 어른처럼 보이려고 바르던 붉은 립스틱과 매니큐어, 그녀가 즐겨 먹던 소다 위의 붉은 체리와 손가락에 끼워 먹던 딸기 등 붉은색은 로리타를 통해 성적 의미를 품은 상징적 오브제로 재탄생 되었다.



[도판7] <로리타> 스틸



[도판8] <로리타> 스틸



[도판9] <로리타> 스틸

2) 그리기 기법

본인의 그리기 작업은 주로 평면의 공간에 흘러지는 물감으로 그려지는데 물감이 평면에서 번지고 뿌려지는 모습은 두 가지의 현상으로 간주된다. 첫 번째는 성적욕망의 형상화이다. 실제로 감정과 욕망은 형체가 없고 실물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것은 분명 우리의 내부에 존재한다. 작품에서 물과 물감의 안료가 섞여 제멋대로 번지고 흩어지는 모습을 이미지화된 욕망의 모습이라고 간주한다. 욕망의 실체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뿌려진 물감이 번져 나가는 모습은 의도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충동적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욕망의 성질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성적 쾌감을 얻기 위한 쾌락적 그리기의 행위이다. 본인은 평면 캔버스나 종이 위에 물감을 뿌리는 행위를 통해 쾌감을 얻는다. 그것은 성행위에서 절정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느 날 성적 절정에 도달한 표정을 한 로리타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정신을 잃은 듯 보이는 상기된 표정이었고 본인은 그 감정을 캔버스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그 순간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로리타가 되어야 했으며 험버트의 시선으로 로리타를 바라봐야 했다. 물이 뿌려진 캔버스 위에 뜨겁게 달아오른 욕망의 힘만큼 세계 물감을 뿌려내었고 물감은 빠르고 힘차게 번져 나갔다. 본인은 찰나에 아찔한 쾌감을 느꼈고, 이 느낌은 절정감과 쾌락의 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 종종 뿌리기 기법을 사용하는데 절정에 다다른 로리타의 얼굴을 그릴 때 만큼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맨 마지막 부분에서 표현된다. 가장 마지막에 절정감이 찾아오듯이 본인의 쾌락적 그리기에서도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물감을 뿌리게 되는데 언제나 그 순간을 기다리며 흥분됨을 느낀다. 이러한 과정으로 본인은 작품 안에서 쾌락을 향한 본인만의 성적 행

위를 실행하였다.

본인은 쾌락적 그리기를 통해 쾌락을 향유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일상에서 쾌락적 일탈이 있다면 예술적 공간에서는 쾌락적 그리기가 있다. 본인은 본인만의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욕망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욕망을 만족시킬 줄 알아야한다.

3) 영화의 연속적 스틸컷

본인은 성적욕망을 표현하기 위해 영화 속의 인물인 로리타를 차용한다. 영화 속 등장인물의 움직임과 색감, 배경음악 등을 통한 감각적 욕망은 내부에서부터 일렁인다. 이것은 딱딱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꿈틀대고 팽창한다. 『로리타』는 본인에게 영화이자 소설, 시, 음악, 그림 모든 예술작품의 세계를 보여준다.

영화가 문학성을 지닌다는 것은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고 감동을 받는 감흥의 상태와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감흥의 상태의 유사한 측면을 말하며, 영화의 문학성은 영화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줄거리에 해당하는 내러티브를 기본적으로 가진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영화 속의 치밀하고도 탄탄한 내러티브는 문학성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요인이 된다고 본다.⁴⁷ 영화는 영상의 아름다움이 시각적으로 완성되는 문학, 또한 이를 흔쾌히 소비하는 뜻밖의 문학으로 규정된다.⁴⁸ 앞서 말했듯이 『로리타』는 본인에게 있어서 본인의 감정과 욕망을 움직일 만큼 탄탄한 내러티브를 가졌다. 그러나 욕망을 움직였던 영화의 장면은 찰나에 지나가 버린다. 이러한 흐름은 일상에서도 일어나는데, 우리의 경험에서 쾌락은 금세 지나가 버리고 만다.

47) 영상문학:감성의 진폭, 송희복, 도서출판 월인, 2014, p.3

48) 영상문학:감성의 진폭, 송희복, 도서출판 월인, 2014, p.4

다시 느끼고 싶지만 계속 잡아둘 수가 없고 그 상황이 다시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쾌락을 경험하지 못한다. 욕망은 항상 변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에 따른 쾌락도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본인은 지나간 순간에 대한 아쉬움과 그것을 영원히 잡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그 감정이 담긴 『로리타』를 그림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욕망의 반응이 컸던 특정 장면을 0.05초의 간격으로 캡처 하였고, 거기에 본인이 느꼈던 감정을 담아 그려냈다. 그려낸 컷들을 연결하여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이미지적 결과는 만족스러웠지만 영화에서 3초가 채 안되는 장면을 88컷으로 나누어 그려내야 하는 고됨이 있었다. 현재 잠시 중단된 이 작업은 본인의 욕망이 강하게 움직였던 특정 장면만을 편집하여 본인만의 감각으로 다시 작업 할 계획에 있다.

88컷을 연결한 그림의 영상은 손으로 그려낸 불완전한 이미지로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적인 색감과 형태 때문에 더욱더 감각적으로 보여 졌다. 이전에는 로리타에게 멈춰진 찰나의 감정을 담아냈다면, 이제는 본인이 그려낸 88컷 안에 살아 움직이는 듯한 감정을 담았다. 맨 처음 로리타를 욕망했던 그 감각들이 되살아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본인의 작업 안에서 만큼은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길 바란다.

4) 이미지 컬렉션 (Collection)

본인의 시선에서 성적욕망은 언제나 존재한다. 일상생활의 평범하고 무의미한 붉은 풍경은 본인의 시선에 의해 재해석된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사물 또는 풍경이 가진 색감과 모양은 보는 이의 경험이 내재된 시선에서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본인은 붉은색을 통한 성 욕망적 이미지를 찾고자 한다. 본인의 붉은 이미지 헌팅(Hunting)⁴⁹의 과정은 일상생활에서

본인에 의해 발견되는 붉은 이미지를 성적욕망을 통해 바라보고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면 핸드폰 카메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본인의 성 욕망적 시선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충동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소지하고 가장 간편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한다. 이 작업은 잘 찍혀진 사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재빨리 이미지를 발견하고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그러나 모든 붉은 것들이 성 욕망적 이미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붉은색 자전거 두 대가 겹쳐 세워져 있다. 그럼 본인은 붉은색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상상하기를 시작한다. 두 대라는 수량은 곧 암수 또는 욕망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상상되어지며 겹쳐 세워져 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또는 성적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두 대의 자전거는 본인의 철저한 주관적 해석으로 성적인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상상하기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오직 본인의 주관적 시선에 의해 상상되어 발견되고 해석되어지는 것이지만 본인에 의해 헌팅된 이미지는 이제부터 성이라는 객관성으로 분류되어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띠어야한다. 이제 이것은 다시 보는 이로 하여금 주관적 시선을 부른다. 그들은 성이라는 객관적 분류아래 욕망이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이미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본인의 이미지들은 나열되어지는 형식을 가지는데 이것은 집약적 힘을 불러일으킨다. 두 대의 자전거처럼 이 하나의 발견된 이미지 혼자서는 별 힘이 없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이미지들의 의미와 에너지가 모여서 전체를 만들고 이 전체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본인의 의도적 상상아래 나열된 그룹이다. 이미지들은 서로 결합되어 우리의 상상속에서 이야기화 된다. 무의미해 보이는 이미지도 어떤 이미지와 만나면 그

49) 적절한 대상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찾거나 고른다는 뜻의 헌팅. 본인의 기준인 붉은 성 욕망적 이미지를 찾아내는 과정을 말함

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결합되어 ‘하나의 어떤 것’이 된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욕망에서부터 비춰진 것일 수도 있다. 그 어떤 것은 경험과 욕망아래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일상에서 성적 시선을 개입시킨다는 것은 즐겁다. 전혀 관련 없는 곳에 너무나도 성적인 것이 본인의 상상에 의해 재발견되어진다는 것은 언제나 새롭다. 상상하기는 혼자만의 만족이며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쾌락적이다.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쉬운 게임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성 욕망적 시선을 자책하거나 불편해 한다. 본인은 제발 자연스런 상상하기를 그대로 즐기라고 말하고 싶다. 상상하기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권리이다. 혼자만의 상상 속에도 사회 규범을 적용시켜야하는 것은 아니며, 누군가에게 상상만으로도 일탈을 경험 하게 될지도 모른다. 성 욕망적 상상하기는 죄가 아니며, 건강한 욕망 충족의 방법이 될 수 있다.

5) 비디오

본인은 예술적 작업과 실제의 삶이 동일한 방향을 향하길 바라며 거짓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둘은 한 방향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작가에게 작업은 스스로의 삶을 예술 안에서 이야기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세계와 일상이 닮아 있거나 또는 일상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내면의 모습을 작업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작가는 타인이 알 수 없었던 솔직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므로 어쨌든 두 가지 경우 모두 그것은 작가 그 사람의 모습인 것이다. 본인은 전자에 속한다. 본인의 작업이 삶과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본인의 비디오 작업은 스스로 실제 욕망을 체험하는 행위를 영상으로 담은 작업이다. 본인은 일상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욕망을 직접

체험한다. 성적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신체접촉, 성기마찰, 후각적 자극과 본인에게 있어서는 청각적 자극도 포함되며, 그밖에 신체부가적인 요소와 함께 친밀한 개인접촉 상상하기 같은 현상들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⁵⁰ 본인이 체험하는 지하철에서 낯선 남자와의 접촉은 묘한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대상이 될 남자의 옆자리에 앉아 지하철이 달리는 진동에 따라 본인의 다리를 움직여 남자의 다리에 접촉을 시도한다. 이때 본인은 아슬아슬한 흥분됨을 느꼈고 금기에 대한 위협을 생각했다. 상대를 바꿔가며 본인은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데 행위의 경험이 쌓일수록 금기의 위협성에 대한 경계는 모호해지며 위협을 흥분을 위한 장치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접촉이 일어나는 장소가 지하철이라는 공공의 장소임과 알 수 없는 타인과의 접촉시도, 그리고 타인의 동의 없이 녹화되는 비디오는 범죄 행위이다. 만약 본인이 여자가 아닌 남자였다면 이 작업은 다른 담론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예술적 작업으로 의도된 욕망의 체험이라는 진실은 오해될 것이고 성추행이라는 죄는 쉽게 적용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여기서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되는 잔인하고 슬픈 사회의 현실 곧 그 여성성을 이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험버트를 비난하고 로리타를 판단미숙의 인격체, 어린 여성 피해자로 감싼다. 그러나 본인에게 들은 동등한 욕망의 관계에 놓인 욕망적 인간일 뿐이며 오히려 로리타의 어리고 아름다운 관능을 욕망의 대상화 시키고자 한다. 어떠한 문제적 상황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힘든 사회의 현실이 때로는 남자일 경우보다 쉽게 해결되고 용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은 이러한 여성성을 이용하여 금기적 욕망을 체험하기로 한다.

본인은 이 여성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⁵¹가 될 수 없으며, 되기를 거부한다. 페미니즘⁵²은 현대에 화두 되는 영역이며 인간의 평등할 권리

50) 고통과 쾌락, 토마스 자즈(이남표 옮김), 학지사, 1995, p.217 인용

51) 페미니스트(feminist) 여권 신장 또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

52) 페미니즘(feminism)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인 권리의 확장을 주장하는 주의.

아래 억압되었던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이론이다. 그러나 본인은 욕망의 체험을 통해 남녀의 관계에서 평등해야 할 권리가 욕망적 관계에서는 그 평등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욕망을 위해 본인은 상황과 감정에 따른 입장 또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때로는 스스로 성적 대상화 되기를 자처하고, 성적 가해자가 되기를 원한다. 페미니즘이라는 이론아래 여성의 권리라는 사회적 이론으로 인해 본능에 기초하는 욕망의 모습을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본인은 페미니즘이라는 범주에 속할 수 없는 인간이다.

이 작업 당시 본인은 노란 염색머리와 짧은 스커트에 빨간색 스타킹을 신었다. 지나치는 타인의 시선이 본인을 향해 머무는 것을 느꼈고, 이 타인의 시선에는 어떤 것이 섞여 있었을지 생각해본다. 그들의 눈초리에는 사회 규범의 기준에서 타락한 여자를 바라보는 한심스러운 시선이나 그러면서도 그것을 욕망의 대상으로 탐하는 시선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본인은 스스로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묘한 흥분됨을 느꼈고, 완전한 작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진실 된 자신감을 얻었다. 본인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최대한 그들이 상상하는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싶었고 그들의 시선이 만들어준 상상의 공간에서 오히려 일탈적 해방감을 느꼈다. 그 안에서 본인은 어느 때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고 존재적 우월감,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다.

3. 작품 분석

본인의 석사 청구전 전시의 주제는 ‘Instant Red’라는 충동적으로 생겨나는 붉음, 즉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성적 욕망을 이야기 하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작업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본인의 성적욕망을 통한 욕망 충족의 과정이기도 하며 본인이 추구하는 쾌락의 시각화에 대한 연구의 결과이다.

본 전시는 붉은색을 띠는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적 상상하기를 의도하였다. 일상에서 발견된 붉은 이미지에서부터 페인팅, 비디오 영상, 붉은 오브제들은 전시장 구석 한 칸에서 피겨 나오는 붉은 조명으로 묶여 다시 한번 하나의 작품이 된다. 본인은 성적욕망이라는 같은 맥락으로 작업된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성적욕망이 단순히 포르노 비디오나 누드 사진 등 비개성적이고 상투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인의 전시는 직접적이기보다는 은유적이며, 성적욕망이라는 넓고 붉은 개념을 유연하듯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다.



[작품 1] 로리타, 62.6 x 72.7cm, watercolor on canvas, 2014

[작품 2] 로리타, 62.6 x 72.7cm, watercolor on canvas, 2014

[작품 1] 로리타, [작품 2] 로리타

영화장면을 짧은 간격으로 연속 캡처 하여 그 스틸 장면을 토대로 본인이 영화에서 느꼈던 감정을 담은 작품이다. 이 장면은 영화 『로리타』에서 본인의 감정을 되흔든 장면 중 하나이다. 영화의 흐름에 따라 본인의 감정도 흘러 움직이게 되었으며 숨 막히게 감정이 고조되고 흥분되었던 장면을 본인만의 감정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어느 정도의 형태는 그 이미지를 따르되 그 안에 흐르는 색감과 물감의 번짐은 영화를 보며 느꼈던 본인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작품 1], [작품 2]에 그려진 장면은 로리타와 험버트의 베드씬 장면이다. 이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장면 이다. 노출은 전혀 없었지만 로리타의 흥분되고 상기된 얼굴은 본인의 성적경험을 통해 흥분을 불러 일으켰고, 그 감정은 가득 차고도 넘쳤다. 본인이 느꼈던 감정을 다시 표현해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었고, 소녀의 앳된 얼굴과 어울리지 않는 성적인 흥분에 가득 찬 표정은 천박하면서도 아름다웠다. 또한 성적 쾌락에 빠져드는 소녀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 불편하고 절대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자꾸만 그녀와 본인을 동일시하는 상상이 머릿속에 그려졌고 본인은 영화 속 로리타가 되어 성적 쾌락을 상상해 보게 되었다.

캔버스 위에 붉은 물감의 자유로운 번짐을 이용하여 로리타의 성적 쾌락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본인의 그리기는 처음부터 형태를 그리고자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는 물성의 힘에 의지한다. 붉은 물감은 단순히 한 가지 톤이 아니라 진한 색감과 투명한 색감이 함께 한 부분을 이루게 되는데 로리타의 입술과 뺨에 물든 붉고 투명한 색감은 성 욕망의 형상화 또는 감정의 표현이다.



[작품 3] 무릎, 45.5 x 53cm(4), watercolor on canvas, 2014

[작품 3]

[작품 1], [작품 2]와 같은 방법과 의도로 그려진 영화의 스틸컷으로 로 무릎리타와 험버트, 로리타의 엄마가 함께 그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이다. 험버트의 옆에 앉아있던 짧은 치마 차림의 로리타는 자신의 무릎이 험버트의 무릎에 툭 툭 하고 닿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험버트는 그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그 순간 험버트의 무릎은 성감대가 되었다. 자꾸만 험버트의 무릎에 닿는 로리타의 무릎으로 인해 그는 흥분과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을 즐기는 듯 보여 진다.

즐거운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의 로리타의 천진난만한 얼굴과 무릎이 닿는 장면이 반복해서 교차되는데 본인은 이 부분에서 험버트의 감각을 상상하며 반복의 힘으로 고조되는 흥분을 경험했다. 또한 본인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상상해보게 되었다. 대수롭지 않은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성적 욕망의 감각으로 인해 짜릿한 경험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순간의 본능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인 것인데 본인은 무의미한 일상이 욕망의 감각으로 변하는 순간에 묘한 매력을 느낀다. [작품 3]은 이러한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

4개의 작품으로 그려진 반복된 무릎의 형태는 제멋대로 흘러가는 물감을 이용하여 험버트와 본인의 욕망된 감정을 담아내려 했으며 험버트가 욕망이 로리타에게로 흘러드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물감의 흐름만큼이나 욕망의 발생도 예측할 수 없으며, 매순간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같은 장면을 그리더라도 물감의 물성에 의한 그림은 같은 그림일 수 없다. 본인의 그리기 작업은 같은 장면을 다시 그리더라도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언제나 새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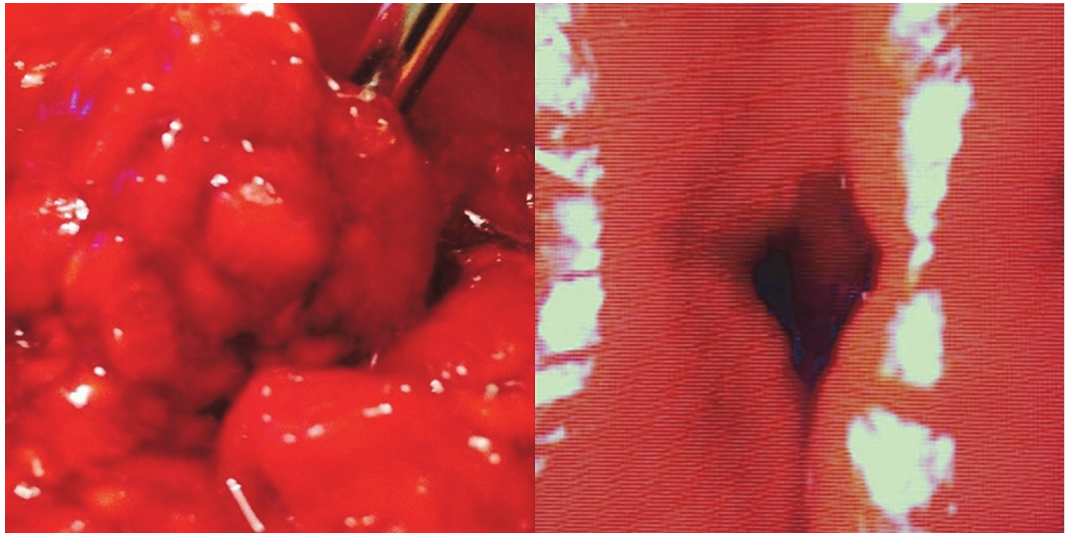


[작품 4] Instant Red - 드로잉,
29 x 21cm, watercolor on digital print paper, 2014

[작품 4] Instant Red - 드로잉

본인의 작업에서 드로잉은 흑백사진이 프린트된 종이에 붉은 물감을 자유롭게 뿌리고 흘러보내는 방식으로 그려진다. 드로잉은 정해진 형태를 띠지 않는 물감의 흐름을 중심으로 감정의 움직임과 같은 자연스런 그 형상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흑백의 모노톤은 성적 절정감을 겪고 있는 로리타의 표정에 집중하게 되며 붉은 색이 주는 상징적 의미를 이용하여 성적 분위기를 극대화 시키고자 하였다. 이 작품 속 로리타는 본인을 투영한 매개체이며 주체자로서 욕망의 충족을 향한 쾌락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준다. 로리타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녀가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보고 그것을 본인만의 쾌락적 그리기라는 방법을 통해 재현하고자 하였다.

감정의 힘에 의한 움직임을 따라 물감을 힘껏 뿌리는 행위를 통해 본인은 짜릿함을 느낀다. 그 힘은 한순간 지나가 버리는 폭발적 감정이자 쾌락을 안겨주는데, 그 순간의 감정을 작품 안에 담고자 하였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쾌락을 영원히 작품 안에 잡아두고자 하였다.



[작품 5] Instant Red - Inside
15 x 30cm, archival pigment print on paper, 2014

[작품 5] Instant Red - Inside

영화 『로리타』에서 캡처된 장면들은 본인의 성적욕망의 감정을 담은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장면마다 본인이 느꼈던 감정을 담아 재해석하여 그려내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이 작업은 점점 확장되어 영화를 벗어나 일상에서도 시도 되었다. 본인은 영화 『로리타』와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상의 풍경에서 영감을 얻었다. 욕망적 시선에 의해 수집된 붉은 이미지들은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나 오브제들이다. 평범했던 일상은 본인의 성적인 시선으로 재해석 되는 것이다.

일상의 붉은 이미지들 중 [작품 5]는 본인이 어떤 내부를 상상하며 발견한 이미지이다. 본인이 가리키는 내부란 욕망의 내부이거나 신체의 내부이다. 붉고 끈적한 질감의 이미지 옆에는 입술인지 어딘지 알 수 없는 내부의 입구로 보여 지는 구멍이 보인다. 이것 역시 욕망의 입구임과 동시에 또는 성기의 입구를 의미 한다. 하나의 이미지는 성적인 어떤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없지만 두 이미지가 결합되어 성적인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의도 하였다. 끈적한 느낌과 구멍은 머릿속에서 함께 결합되고 움직이면서 내부에 붉고 끈적한 무언가를 상상하게 될 것이다. 애인과의 키스를 상상할 수도 있고, 끈적한 성관계를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상하는 동안 우리는 성을 욕망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무의식이나 개인이 숨기고 싶어 하는 욕망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 욕망충족을 위한 상상 속 일탈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작품 6] Instant Red

15 x 15cm, archival pigment print on paper, 2014

[작품 6] Instant Red

본인이 속한 ‘성신여자대학교’는 ‘성신’이라는 명사가 붙여진 여자에게 대학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명칭이다. 학교의 높은 건물 위에는 밤에도 보일 수 있도록 붉은색의 네온사인으로 학교의 이름을 세워 놓았다.

어느 날 ‘성신’이라는 명사에서 ‘신’이라는 글자가 작동오류로 어둠 안에서 사라졌다. 그날 밤에는 ‘신’이라는 글자가 사라진 채로 ‘성 여자대학교’가 되어 밤하늘에 불을 밝혔다. 본인은 어두운 밤 건물의 꼭대기에 붉은색의 글씨로 ‘성 여자대학교’가 쓰여진 학교를 바라보며 마치 은밀한 밤에만 문을 여는 성적인 여자들의 학교가 된 것만 같다고 생각했다. 본인에게 이것은 매우 묘한 성적 상상을 일으키는 밤의 풍경이 되었고, 이것을 본 또 다른 누군가도 같은 상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 욕망적인 상상을 부르는 풍경임은 틀림없었다.

우리 주변의 사물이 외부의 요인에 의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하기도 한다. 본인은 이러한 주변의 풍경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성적인 풍경을 찾아 나설 것이다. 본인에 의해 발견된 성적 풍경은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고 그것이 나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욕망 중 성욕이 있는 것처럼 단지 다양한 풍경 중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성욕은 자연스러운 우리 자신의 욕망이다.



[작품 7] Instant Red - Nipples

15 x 45cm, archival pigment print on paper, 2014

[작품 8] Instant Red - Two some

15 x 45cm, archival pigment print on paper, 2014

[작품 7] Instant Red - Nipples

3개의 사진으로 나열된 이 작품은 각각의 이미지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다. 단순히 본인에 의해 일상생활 안에서 선택된 붉은색을 품은 이미지들일 뿐이다. 그러나 세 개의 이미지가 하나로 묶였을 때 눈에 띄게 공통적인 것은 볼록 튀어나온 어떤 형태이다. 그리고 마치 젖꼭지 같은 무언가를 상상하게 될 것이다. 젖꼭지는 우리의 성감대가 될 수도 있고 엄마의 젖이 될 수도 있지만 뽀족하지도, 둥그스름하지도 않은 그 섬세한 형태에서 오는 야릇함은 미묘하면서도 재미있는 요소이다. 붉은색을 머금은 이 젖꼭지부분은 자꾸만 시선을 끌어당기며 왠지 모를 욕망을 느끼게 한다. 원만한 바닥에서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솟아오르는 모습과 그 가장 끝에 맺힌 붉은 톤의 색감은 마치 쾌락의 절정감을 보여주는 듯하다.

[작품 8] Instant Red - Twosome

‘두 개’와 그 ‘두 개’의 사이를 의미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 두 다리의 사이, 두 입술의 사이 등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 관계 속에서 욕망을 충족시켜야함을 의미한다. 성적인 관계에서 타인과 자신, 둘 사이에서 비밀스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다. 둘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할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그것은 일상을 욕망적 시선으로 바라본 본인의 상상하기이다.

가장 왼쪽의 이미지는 두 다리의 경계처럼 보이지만 어떤 부위인지 단번에 알아챌 수 없도록 클로즈업된 이미지 이다. 가운데에는 두 개의 소세지 이미지이며 맨 오른쪽은 엉덩이처럼 보여 지는 이미지이다. 본인은 ‘두 개’라는 공통된 특징으로 그룹을 만든 것인데 이것은 가운데 소세지의 이

미지로 하여금 성적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소세지는 남자성기의 모양으로 상상될 수 있으며 양 쪽의 두 이미지는 다리의 사이, 엉덩이의 사이와 같은 부분을 의미하며 또는 성기의 결합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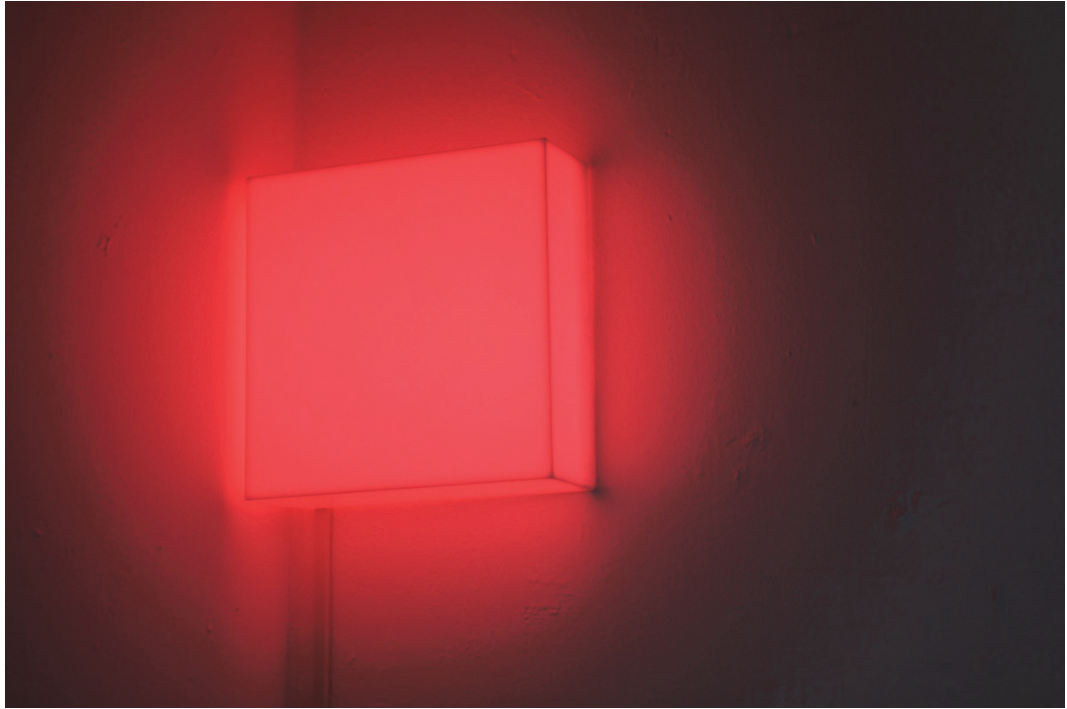
[작품 9] Instant Red, 02:01min, video, 2014

[작품 9] Instant Red

낮선 타인과 함께 한 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공공의 장소 지하철에서 본인의 일탈적 금기행위를 비공개적으로 촬영한 작업이다. 본인은 낮선 타인의 옆자리에 앉아 신체적 일부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핸드폰 카메라는 본인의 지시를 의뢰받은 친구에 의해 타인이 알아 챌 수 없도록 진행되어 영상으로 담겨진다. 이러한 시도는 영화 『로리타』의 험버트와 로리타의 무릎이 닿는 욕망적 장면에서 영감을 받은 작업으로 일상에서 성적욕망이 발생하는 장면을 담아내었다.

의도적으로 낮선 남성의 옆자리에 앉으며 3분에서 5분가량 본인의 다리를 남성의 다리에 일부러 닿게 하거나 비비는 듯 움직여 접촉을 시도한다. 본인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접촉의 감각을 통해 성적 스틸감이나 욕망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사실 이것은 성추행 또는 사생활 침해 등 금기의 행위에 해당되고 상대방인 타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하지만 본인은 예술이라는 명목아래 이 작업의 타당성을 구하고 나아가 예술과 범죄 사이의 경계를 방황하며 그 위험성을 이용하고자 한다. 위험한 금기의 장애물은 본인의 감정을 극대화 시키는 장치로 작용하며 이것을 통해 금기의 경계를 즐겨 욕망을 만족시켜나가는 본인만의 방법으로 표현한다.

영상에서 본인은 노란 염색 머리에 짧은 스커트와 빨간색 스타킹차림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겉모습은 타인의 부정적 시선에서 근엄하지 못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본인을 성적대상으로 탐하는 누군가의 욕망을 발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인의 존재는 욕망의 일부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예술이라는 주장아래 진행된 범죄행위는 타인이 느꼈을지도 모르는 욕망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작품 10] Instant Red - Red light, 30 x 30 x 10cm,
red light in a white acrylic box, 2014

[작품 10] Instant Red - Red light

본인의 청구전 전시장 모퉁이에서 퍼져 나오는 붉은 조명은 ‘Instant Red’ 라는 주제로 구성된 작품들을 아우른다. 본인은 전시장에 전시할 작품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작품 형식의 다양함과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기를 의도하였고 각각의 목소리로 붉음(욕망과 쾌락)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모든 요소를 붉음이라는 분위기 안에서 느껴지도록 조명을 사용 하였다.

주문 제작 되어진 이 조명은 흰색 불투명 아크릴 박스 안에 꺼졌다 켜짐을 반복하는 붉은 조명을 넣은 작품이다. 조명은 꺼졌다 켜짐을 반복하는 순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서서히 시들어 꺼졌다가 은은하게 다시 불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전력이 제공되는 한 이것은 무한 반복되는데 꺼졌다 켜짐을 반복하는 시간차는 불규칙적으로 적용된다. 이것은 마치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과 쾌락 그리고 서서히 피어오르는 불빛은 금기와 욕망 사이의 애매한 경계와도 같은 모습을 시각화 하고자 하였다.

전시장의 모퉁이 구석에 설치된 이 작품은 성적인 것들의 은밀하면서도 시선을 끌어들이게 하는 미묘한 매력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넓은 면에 시원하게 밝혀지는 조명과는 다르게 구석에서 은밀하게 피어나는 불빛은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좀 더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힘을 가지며 세 면의 모퉁이에서 만나는 소실점은 안정되고 안락한 느낌을 준다. 우리가 성적욕망에 솔직해지는 순간 쾌락을 온몸으로 느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본능과 일치하는 어떤 안락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사회에서의 지친 이성을 회복하는 순간은 욕망의 충족을 향한 쾌락에 있다.

IV. 결 론

본인은 2012년 에서 2014 년 사이의 작업 기간 동안 현재의 삶의 모습과 앞으로 원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본인의 삶은 성적 욕망을 위한 쾌락을 중요시하고 일탈행위를 즐기며 그것에 존재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근엄하여야 함을 추구하는 사회의 바람직한 존재와는 달랐다. 때때로 사회적 존재로서 근엄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혼란스러웠지만 본인의 관심이 거기에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본인의 작업은 그것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다. 가끔은 쉽게 이야기 하려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 한다는 것이 두렵지만 인간은 생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심리적 존재⁵³이기에 본인은 거기에 본인만의 삶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프로이드는 인간이 성본능의 대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승화능력이라고 했으며, 성 본능이 문명에 대해 갖는 중요성은 이 승화능력에 있다고 보았다.⁵⁴ 예술가는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 안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고 자아를 돌아보며 감정을 담아 어떠한 결과물로 표현한다. 외적 존재에 대한 연구가 아닌 인간의 내적 탐구에 대한 표현과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간다. 본인의 성 본능의 승화능력으로 볼 수 있는 예술 활동을 통해 관심사인 성적욕망에 집중하며 그 속에 존재하는 감정의 형태를 붉은 색채로 표현 하였다. 작품 안에 물감을 뿌려내는 행위 자체로 자유롭게 욕망을 만족시키는 본인만의 쾌락으로 이끌어 나갔다. 이러한 행위가 사회에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로 대치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금기를 위반

53) 프로이드와의 대화, 이창재, 학지사, 2003, p.181

54) 문명속의 불만, 지그문트 프로이드(김석희 옮김), 열린책들, 2004, p.16

하고자 하는 행위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예술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그 어떤 금기의 제약도 받지 않고 쾌락을 향해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본인의 작업은 사회적 시선이나 금기에서 가끔은 혼란스럽고 자유롭지 못함을 느낀다. 이것에 대해 소설 '로리타'의 서문에서 쓰여진 글은 본인의 작업에 있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사실 이 작품을 통틀어 외설적인 단어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통속소설에 수두룩이 등장하는 상소리 따위에는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현대적 관습에 길들여 뻔뻔해진 속물이라면 이 책에서 그런 말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오히려 놀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짐짓 요조숙녀인 체하는 모순적인 독자들을 안심시킨답시고 '성욕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을 만한 몇몇 장면을 희석하거나 생략해야 한다면, 차라리 『로리타』의 출판을 포기하는 편이 나으리라. 누군가는 지나치게 관능적이라고 터무니없는 비난을 퍼붓겠지만, 바로 그런 장면들이야말로 지극히 도덕적인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결코 빠트릴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⁵⁵

숨어서는 성적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근엄한 인간인 체하는 모순적인 사람은 금기를 향한 쾌락적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존재로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 본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문의 내용과도 같이 지극히 도덕적인 결말 즉 긍정적인 결말을 위해서 로리타와 험버트의 비극적인 이야기, 그리고 본인의 성적욕망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가 필요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성적욕망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환상과 실제 사이를 경주하는 인물 험버트는 욕망과 사랑의 환상 속에 로리타를 가두려는 욕구로 예술적 창조 작업을 통해 그의 진실한 픽션인 『로리

55) 로리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김진준 옮김), 문학동네, 2013, p.11

타』 속에서 영원불멸 시키려는 열망을 전개하였다. 현실에서 재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 그 과정을 영원히 저장할 공간인 『로리타』를 집필하여 예술적 재현을 실행하였다.⁵⁶ 본인의 작품에 드러난 성적욕망 역시 현실에서 모두 드러낼 수 없기에 작품 안에 담길 수 있었다. 현실에서 완전히 충족할 수 없었던 욕망을 작품 안에서 충족시키고자 하였고 이것은 본인에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인간의 성 본능은 원래 생식에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쾌감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새로운 전망이 열린다’⁵⁷는 프로이드의 성 본능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는 본인의 예술적 충족 방법을 이끌어 내는 데에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금기와 성적욕망을 통한 쾌락의 활용은 사회적 존재로서 지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본인에게 삶을 유지하는 힘이자 즐거움, 자유, 존재의 가치를 부여 하였다.

본인은 논문 집필 기간 중 본인을 닮은 딸아이를 낳았다. 아이와 본인의 작업 사이에서의 혼란은 본인의 정체성 혼란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성적욕망을 이야기하는 본인의 모습이 딸에게 어떻게 비춰질까하는 두려움에 한 아이의 엄마로써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본인에게 아이를 낳는다는 경험은 하나의 세계를 끌어안는 것만 같아 부담스럽고 그것의 앞에서 나 자신이 심판되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 움츠러들어만 갔다. 과거의 본인과 엄마로서 본인의 모습 중 어떤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일지에 대한 혼란과 ‘나’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커져만 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욕망하는 작업 속에서의 모습과 엄마로서의 모습 모두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었고 어느 한 쪽도 내줄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고민이 있었다. 예술가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후 선택한 결혼과 엄마의 삶은 단순히 작업과 육아를 병행하

56) 로리타 혹은 욕망이란 이름의 글쓰기, 박승현, 경희대학교대학원, 2014, p.59

57) 문명속의 불만, 지그문트 프로이드(김석희 옮김), 열린책들, 2004, p.17

면서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쉽게 생각했던 본인의 오만이었다. 오만은 많은 혼란을 낳았다. 엄마로서의 모습은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본인일 것이고, 욕망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일탈과 금기를 향한 반항적인 본인의 또 다른 모습일 것이다. 만약 아이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 본인은 오로지 일탈과 금기를 향한 쾌락에만 치우친 편협적인 삶을 살게 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이의 존재로 이중적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그것이 공존해야만 하는 이유가 사회와 욕망사이에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엄마라는 새로운 정체성은 이중적 태도를 조화롭게 잘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중심의 축이 되었다. 본인의 내부에서 아이와 로리타가 영원히 함께 살아 숨쉬길 바라며 앞으로 본인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될 성적욕망에 대한 이야기는 예술적 작업을 통해 계속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통과 쾌락, 토마스 자즈(이남표 옮김), 학지사, 1995
- 롤리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김진준 옮김), 문학동네, 2013
- 문명속의 불만, 지그문트 프로이트(김석희 옮김), 열린책들, 2004
- 미셸 파스투로의 색의 비밀, 미셸 파스투로, 미술문화, 2003
- 사드의 철학과 성윤리, 티모 에이락시넨(박병기, 장정렬 옮김), 도서출판
인간사랑, 1997
- 성의 역사1 앎의 의지, 미셸 푸코(이규현 옮김), 나남출판, 2004
- 성의 역사2 쾌락의 활용, 미셸 푸코(문경자, 신은경 옮김), 나남출판, 2004
- 역사철학, 김종호, 서울:동명사, 2001
- 영상으로 말하기, 최상식, 시각과 언어, 2001
- 영상문학:감성의 진폭, 송희복, 도서출판 월인, 2014
- 에로티즘, 조르주 바타유(조한경 옮김), 민음사, 2001
- 욕망의 전복, 페터 비트머(홍준기, 이승미 옮김), 한울아카데미, 1998
- 잉여 쾌락의 시대, 권택영, 문예출판사, 2003
- 프로이트와의 대화, 이창재, 학지사, 2003
- Jenseits des Lustprinzips 쾌락의 원리 저편, 지그문트 프로이트(강영계
옮김),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 Totem und Tabu 토템과 터부, 지그문트 프로이트(강영계 옮김),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 로리타 혹은 욕망이란 이름의 글쓰기, 박승현, 경희대학교대학원, 2014

ABSTRACT

A Study on the Visualization of Repressed Sexual Desire

– Focusing on my own artwork –

Jo, Eun-ji

Departmen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researches the expression form and also describes its meaning,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 exhibited in the master degree show under the theme of 'Instant Red' among the researcher's works created from 2012 to 2014.

The researcher started the work from curiosity about human's sexual desire and doubts about social perception of it which looks different from other types of desire. Sexual desire had to be met without violating social taboos all the time, which is the limitation and repression of desire. However, without taboos, there cannot be desire. Without desire, there cannot be taboo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tangled up just like a cogwheel.

The researcher felt that sexual desire impulsively rising in daily life became a sense of guilt because of social taboos and gaze.

Even though this sense of guilt represses oneself from sexual desire, the one aims to get out of it through artistic work.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work visualizing the relation between sexual desire and taboos, and moreover to introduce how to enjoy it. Paying attention to the relation between sexual desire and taboos, the researcher aims to reveal the hedonic act for pleasure to meet sexual desire.

The hedonic drawing using red color which is one of the methods to meet sexual desire of the researcher is expressed as plane drawing with spreading and sprinkling based on the material property of watercolor. As a muse to the researcher, a girl 'Lolita' borrowed for a film 『Lolita』 is shown as a medium reflecting the researcher, which aims to contain the researcher's eyes filled with desire through her. The photo collection of recording/collecting images discovered in daily life is based on red-colored daily landscape viewed by the researcher's eyes filled with desire, and red-colored objects. Viewing ordinary daily life in the eyes filled with desire and also giving sexual meanings to it, it aims to arouse sexual imagination and desire.

It aims to explain how to maximize pleasure using the repression of sexual taboos as an obstacle, and also reasons why we should use pleasure in repetitive and boring life. It could become a chance to think the meaning of life and reason for existence through a deviation from boring daily life only pursuing the stability in the desolate modern society. The hedonic deviation would work as

energy that provides individuals' existential value and psychological confidence to live independent and healthy life. It studies the contents and expressions of the works and researches them on the meaning of their meanings.